

2019 새 설계

최형식 담양군수

“소득 4만달러·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구현”



“군민의 행복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해로 ‘소득 4만 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자치와 혁신의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올해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담양식 자치 농정’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져 ‘작지만 강한 농업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과 위생 농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문화·관광·경제를 융합한 ‘신(新)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면서 적정규모의 ‘동물복지형 축산’을 기반으로 ‘위생축산’을 정착시키고, 종축개량과 저지방 한우 등 대표 브랜드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계층별로 지원이 가능한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담빛여행 사업단’ 등 사회적기업과

친환경농·문화 융합 고부가 창출

‘청년상인 창업 특화 구역’ 조성

‘담양다움’ 브랜드 800만 관광시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대도시 근교 이점을 살려 빈 상가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담양 전통시장을 루프탑 가든형 복합 문화상가로 바꿔 ‘청년상인 특화구역’으로 조성한다.

그는 또 새로운 정주여건이 될 고서 보춘지구 개발사업, 수북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메타프로방스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과 도로변 인도 확장, 각종 재난재해 안전시설 늘리는 등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30 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미래 생태도시 개발전략을 구축하고 전원마을을 조성,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빈집 정비 등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 군민이 중심이 돼 지

역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또 2030년까지 총 6조3087억원이 투입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신성장축으로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군수는 ‘행복도시 담양’을 위해 노인의 치매관리와 지원은 물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를 늘려 가고 ‘노인 반값택시’ 도입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의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지원과 생활형 일자리 창출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어 최 군수는 “자연경관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생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담양다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8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사문학 등 인문학적 자산을 정원도시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담양의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원도심을 예술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폐건물을 공연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농업경제 기반을 다지는 ‘담양식 자치농정’
-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 ▲사람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정착
- ▲주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구현
- ▲지속가능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킨 해동주조장과 담주 다미담 예술구사업, 담빛 야외음악당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남도정원~관방제림~메타 길 관광 벨트화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최형식 담양군수는 “‘군민의 행복권’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올해가 담양 발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syj827@kwangju.co.kr

‘10년 공든 탑’ ...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청신호’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종료
국무회의 등 심의 국회 제출
3500억 투자 500병상 규모
연구병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장성군이 지난 2007년부터 전남대학교 병원과 10년째 공들여 추진 해 온 ‘국립심혈관센터’ (이하 센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영광·함평·장성)이 대표 발의한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5일 종료됐다.

센터 설립의 추진 동력이 될 이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성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500병상 규모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10여년 간 성과가 없었다.



유두석 장성군수 등 국립심혈관센터 실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회의를 갖고 센터 건립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이자 광주·전남상생 공약으로 선정됐지만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관련된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작년에도 성과 없이 해를 넘겼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장기 계류하던 관련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1월 중 전남도, 광주시, 장성군 관계자를 비롯한 실무 추진위원이 보건복지부 방문이 예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실무추진 위원들은 지난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지 매입비와 기본 실시설계비 246억원을 다시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성군은 최근 강신영 전남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국립심혈관센터 실무추진위원회’를 열고 조기 건립 추진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위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산업과 연구 클러스터가 미비한 호남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입지로는 편백림을 활용한 휴양·요양·재활 인프라가 갖춰진 장성 축령산과 가까운 광주 연구개발 특구 내 첨단3지구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군민·공무원 대상

겨울철 ‘사랑의 헌혈운동’

23일 군청 의회동 4층

화순군이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겨울철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친다.

화순군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해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의회동 4층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혈액의 보유량이 급감하면서 해마다 부족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겨울철과 여름철에 두 차례 헌혈운동을 해 왔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가능 나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만 69세 미만이다.

행사 당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사전검사 결과, ‘헌혈 적합자’로 판정된 경우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공무원과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작지만 미래성장 가능성 큰 농업 경영체 공모

담양군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신규 강소농(強小農) 경영체’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경영 개선 실천 교육을 통해 경영체의 자율 및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고,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경영개선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의 농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061-380-3442)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서영준 기자 syj827@

세얼굴

“주민 사랑받는 참 경찰 되도록 최선을”

이재승 장성경찰서장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평정대한 참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 “직업들과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 주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서장은 또 “경찰의 최대 고객은 주민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정성을 다해 뛰어야 한다”며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치안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나주 출신인 이서장은 1987년 경찰대학 3기로 경찰에 입문해 구례경찰서장과 충남 아산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경찰수사연구원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 형 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